

# “KTX 경유·광주 민간공항 이전...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

민선 7기 구상 듣는다

김 산 무안군수

대담=장필수 전남본부장

무안군은 전남지역 1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수십년 동안 1위를 차지해 온 해남군을 넘어선지 오래다.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대다수 전남지역 군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가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무안'으로 정한 이유다.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남약신도시의 마지막 지역인 오룡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고 2025년부터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할 예정이다. 민선 7기 들어 광주 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무안공항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 군수는 "무안은 발전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북방은 지역"이라며 "이런 여건을 잘 살려 행복한 무안이 되도록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정 운영도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군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무안이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정 운영 방향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

첫째,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주민 소득을 보장하겠다. 대표작물인 양파와 마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설원예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농촌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복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은 부족한 학교와 대중교통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

셋째, 감동이 있는 복지를 목표로 100원 택시와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넷째, 황토갯벌랜드와 일로 화산백련지를 서남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노을과 힐링 테마로 특색있게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 마지막으 소통과 협치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은.

▲개항 11년째이지만 연간 이용객이 30만~35만명에 머물러 있다. 정기노선 확보가 관



무안공항 활주로 확충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군공항 이전은 TF팀 구성해 면밀히 논의  
2년후 오룡지구 입주 시작 땀 市 승격 기대

건인데 국제선 개설을 위해 운항 손실을 지원하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공항시설 확충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의 조기완공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다.

-광주시는 군공항과 패키지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시절에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을 약속했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와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군공항 이전은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TF팀을 구성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승격을 위한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읍·면이 1개 있거나, 총 인구가 1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무안 인구는 6월말 기준으로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문제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중심 상가로 차량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남약 순환 버스를 도입해 부족한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하겠다. 같은 생활권인데도 목포와 무안으로 나뉘어 있는 택시사업구역도 통합해 각기 다른 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육청과 협의해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을 찾겠다.

-파동이 잦은 양파 가격 안정화 방안은.

▲올해도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산지에서 폐기했다. 1일 거래량이 워낙 많아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소득안정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기계화단지를 30%로 늘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결하고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겠다.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 양파연구소 설립을 건의해 실현하고 정부에는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과 생



감동있는 복지·일자리 창출로 군민 행복  
스마트팜 단지 조성·농민수당 지급 검토  
상대적 침체 무안을 2만 자족도시로 육성

8만2292명이고 가장 인구가 많은 삼향읍이 3만8555명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한데 2년후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삼향읍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룡시나 세종시처럼 광역자치단체 소재지는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방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모으고 있다.

-남약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무안을 활성화 방안은.

▲도농간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다. 농촌지역인 무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복합편의시설과 스키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무안이 '2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공항 배후도시 기능을 하도록 할 생각이다.

-남약신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민

산량 쿠퍼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

-농민수당 지급이 재정부담이 크고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 있다.

▲농민수당은 영농준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 보탬이 되고 귀농 준비자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농촌인력수급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

김 군수는 당선을 위해 거창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살맛나는 무안공동체를 만들지 고민했다. 군민들의 바람이 큰 이슈보다 꼼꼼하게 일상을 챙기는 생활정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도 씨실과 날실처럼 군정운영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김 산 무안군수는

의리 중시하는 재선 군의원

4년만에 정치 재개해 당선

김산(60) 무안군수는 운남면 출신이다. 초·중학교를 고향에서 나온후 목포에서 고교(문태고)와 대학(목포대)을 졸업했다. 2006년 민선 4기에 무소속으로 무안 군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민선 5기에는 민주당으로 재선에 성공해 무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재선 군의원을 지낸 만큼 통상 체면을 높여 광역의원이나 군수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전남도의원 도전에 접었다. 김 군수는 "4년전 전남도 의원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치적 의미 때문에 뜻을 접었다"고 회고했다.

이 일로 그는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4년만에 정치 재개에 나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지만 1위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공천을 받아 민선 7기 무안군수가 됐다.

행운이라고 할만 하지만 행운도 무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에게만 주어진다 것을 김 군수가 입증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은

- 도시재생 뉴딜사업(원도심 활성화)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인구 10만 달성, 무안시 승격 기반 마련
- 농민수당 지급
-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지원
- 갯벌 및 낙지어업 보전 및 지원
- 행복택시 쿠폰 지급(입선부터 출선까지)
- 디지털장기장 설립(예비창업 양성교육)
- 해안관광도로 개설 (초의선사 탄생지-툼터리)
- 남약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 남약 순환버스 운행
- 항공계열 특성화고교 설립
- 황토갯벌랜드 운영 활성화

## 여론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광주·전남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민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지방지사

- 광 산 062)944-0444
- 군산시 063)467-2500
- 정읍시 063)537-8886
- 익산시 063)854-7300
- 남원시 063)652-0974
- 순창군 063)653-0444
- 고창군 011-9615-9292
- 서울보급소 02)313-5962

문의처 (062)

- 광고 227.9600
- 신문 220.0551
- 예향 220.0550



창사66주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www.kwangju.co.kr